

2018 방송작가유니온 지역방송작가 실태조사 보고서

I. 들어가며

방송작가는 방송 제작에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기획에서, 섭외, 취재, 구성, 집필 업무(상대적으로 자막 등의 후반 작업까지 다루고 있음)를 담당하며, 방송콘텐츠의 성격과 가치를 좌우하기도 한다. 방송작가의 역할은 하나의 콘텐츠 제작에서 그야말로 전 방위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방송작가는 '프리랜서'로 고용불안, 인권침해, 열악한 처우와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 방송작가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수면 위로 드러났으나 언론이 그들의 사용자인 탓에 많이 부각 되지 못했다. 최근 들어 비정규 방송 스태프들에 대한 노동환경 문제가 다시 대두되기 시작했다. 2016년 방송작가유니온의 활동 시작과 다양한 이슈 파이팅 활동, 故이한빛 PD, 故박환성·故김광일 PD의 안타까운 죽음, 한 드라마 스태프의 추락사고, 모 방송작가의 미투 운동 동참, '그것이 알고 싶다' 출신 방송작가의 고발은 위풍당당한 한류로 상징되는 방송콘텐츠 산업의 유명무실함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물론 방송사는 뒤늦은 걸음을 마지못해 따라오는 중이지만, 진보언론들이 비정규 방송 스태프들의 현실을 연일 보도하며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치권도 불공정 노동 근절에 대한 감시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규모와 사업장 수가 상대적으로 밀집된 서울/수도권의 방송작가에 비해 지역사에서 일하는 방송작가들은 서울/수도권의 현황과 같으면서도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지역작가들의 노동 실태를 대표할 만한 수치와 통계 데이터들은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2018방송작가유니온 지역방송작가 실태조사 보고서는 지역방송 구성작가들만의 노동 실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실시됐다. 실시 형태는 구글 설문지를 통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구성작가들이 한데 모여 만나기 쉽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2월 2일부터 18일까지 총 16일간 진행됐으며, 총 192명이 참여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방송작가들의 노동 현실이 어떠한지, 또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1. 현황

KBS는 지역국의 형태로 2018.2 현재, 공식홈페이지 기준으로 강릉, 광주, 대구, 대전, 목포, 부산, 순천, 안동, 울산, 원주, 전주, 진주, 제주, 창원, 청주, 춘천, 충주, 포항까지 총 18개사로 구성돼 있다. MBC는 계열사로 묶여 있으며, 대전, 청주, 충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안동, 포항, 광주, 전주, 여수, 목포, 춘천, 원주, 강릉, 삼척, 제주 까지 총 19개 사이다. 이외에도 SBS채널을 공유하는 지역민방은 TJB(대전), CJB(청주), KNN(부산), UBS(울산), TBC(대구), KBC(광주), JTV(전주), G1(강원), JIBS(제주)가 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방송(TBN)이 강원, 대전, 전북, 대구, 경북, 울산, 부산, 광주, 경남, 제주까지 총 11곳이다. 이외에도 CBS, 티브로드와 CJ헬로비전, 불교방송 등이 지역에 작은 규모로 방송물을 제작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도 별도로 외주제작사를 두어 시·도별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KTV 한국정책방송도 세종에 위치하고 있다. 광역 거점 도시의 지역 방송사에는 15~20명 내외로, 작게는 6~7명의 작가가 일하고 있다. 그러나 유동성이 크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여러 방송사를 오가며 투잡을 하는 방송작가들의 업무형태 상 전체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통계청 고시 제2007-3호에 「한국 표준직업분류」 기호 28111에 규정된 방송작가를 중심으로 하여

방송업계에서 흔히 '작가라고 불리는 넓은 의미의 방송작가는 다음과 같다.

분류항목	업무 내용	직업예시
28111 방송작가	드라마, 영화, 연극, 코미디, 라디오 프로그램, 다 큐멘터리 등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원고, 시나리 오, 대본 등을 작성하는 자	드라마 작가, 구성작가, 코미디 작가

※참고: 2016 방송작가 노동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유니온)

지역방송작가의 업무는 일반적인 방송구성 작가와 다르지 않다. 다만 프로그램의 장르가 서울/수도권보다 제한적이고, 시사교양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은 기획, 사전조사, 섭외, 대본 작업, 자막, CG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모든 프로그램의 제작은 담당 PD와 수시로 회의를 하며 담당 PD의 지휘·감독 아래 이뤄진다.

II. 실태조사 결과

1. 재직 중인 방송사

귀하의 재직 방송사는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총 190명이 답했다. KBS가 76명, MBC가 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민방과 교통방송이 각각 19명, 10명에 달했다. 지역 케이블 또한 12명이 응답했다.

1. 귀하의 재직 방송사는 어디입니까? (복수의 경우 집중 방송사로 택일)	
CBS	1 (0.5%)
EBS	1 (0.5%)
KBS	76 (40%)
KTV	2 (6.3%)
MBC	63 (33.2%)
경인방송	1(0.5%)
교통방송	10 (5.3%)
대북 민간방송	1(0.5%)
라디오 주말	1(0.5%)
불교방송	1(0.5%)
인터넷방송 (네이버)	1(0.5%)
종편	1(0.5%)
지역민방 (SBS 채널)	19 (10%)
케이블	12 (6.3%)
총합계	190

2. 종사하는 방송사의 프로그램 분야

현재 집필 중인 프로그램의 분야에 대한 응답은 총 191명이 진행했다. TV가 143명(74.9%)으로 가장 많았고, 라디오는 41명에 달했다. 또한 보도, 레귤러(규칙적으로 주1회 이상 방송하는 프로그램)가 아닌 시즌제 프로그램, 인터넷방송 예능 응답자도 있었으며, 라디오와 TV를 병행하고 있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2. 집필 중인 프로그램의 분야는?	
TV	143 (74.9%)
라디오	42 (22%)

라디오 병행	1 (0.5%)
레귤러가 아닌 TV 다큐멘터리, 시즌제 예능다큐 등	1 (0.5%)
보도	3 (1.6%)
인터넷방송 예능	1 (0.5%)
총합계	184 (100%)

3. 프로그램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프로그램의 직위를 묻는 질문은 총 190명이 응답했다. 그 중 메인 작가 총 81명, 직위 없는 1인 체제가 51명, 서브 작가가 44명 순이었다. 기타의견으로 “1프로그램 1작가 시스템이라 그냥 00프로그램 담당작가”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는 직위없는 1인 체제에 속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3. 프로그램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1프로그램 1작가 시스템이라 그냥 00프로그램 담당작가, 입니다	1 (0.5%)
막내	1 (0.5%)
메인	81 (42.6%)
서브	44 (23.2%)
신입 및 취재 섭외	11 (5.8%)
직위 없는 1인 체제	51 (26.8%)
패널 겸 작가	1 (0.5%)
총합계	190

4. 현재 근무형태는?

근무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191명이 응답했다. 총 82명이 반상근, 54명이 상주, 55명이 비상근이라 응답했다. 반상근은 9시 출근 6시 퇴근이 아니어도 프로그램이 제작되는 기간동안 일정 시간을 꾸준히 출퇴근해 업무를 한다는 뜻을 의미한다.

4. 현재 근무의 형태는?	
상주	54(28.3%)
비상근	55(28.8%)
반상근(일정 시간 상근 업무)	82(42.9%)
총합계	190

5. 귀하의 주당 평균 근무 일수는?

방송프로그램은 방송의 시기에 따라 특집과 레귤러 프로그램으로 이뤄진다. 레귤러 프로그램은 1주일에 1회 이상, 혹은 한 달에 1회 이상 정해진 편성 시간에 맞춰 방송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프로그램의 방영 횟수에 따라 업무 또한 늘어나는데, 주 4~5일이 총 응답자 192명 중 124명 64.6%으로 가장 많았다.

5. 귀하의 주당 평균 근무 일수는?	
4일~5일	124 (64.6%)
6일~7일	37 (19.3%)
1일~3일	27(14.1%)
기타의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0.5%) 밤낮없이 - 1 (0.5%) 때에 따라 다르지만, 주말 없이 일하는 날이 많음 - 1 (0.5%)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유동적 -1 (0.5%)	
총합계	190

6. 현재 급여의 지급 방식은?

방송작가들은 대개 제작비 내에 포함된 문예비나 원고료로 지급 받는다. 현재의 지급 방식을 묻는 질문에 192명이 답했으며, 154명(80.2%)이 프로그램 회차 별 지급이라 응답했다. 기타의견으로는 “주급이긴 하나 월급형식으로 입금함”이 1명 포함되어 있는데, 주별 원고료를 1달에 몰아 지급하는 것이므로, 형식만 월급일 뿐 주급으로 봐도 무방하다.

6. 현재의 급여 지급 방식은?	
프로그램 회당(건당) 지급	154 (80.2%)
주급(프로그램과 무관하게 일정 주급 환산)	18 (9.4%)
월급	14 (7.3%)
일급(일당)	4 (2.1%)
기타의견	
주급이긴 하나 월급형식으로 입금함 1 (0.5%)	
총합계	190

7. 현재 귀하의 급여는 월평균 추산 얼마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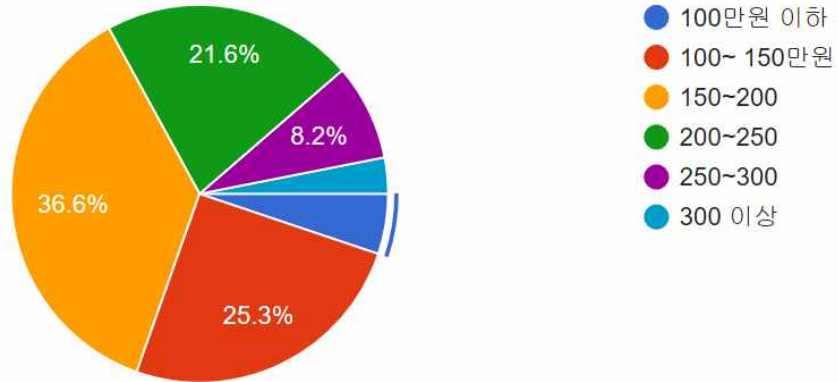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 192명 중 36.5%인 70명이 150~2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00~150만 원이 25%에 달했으며, 100만 원 이하도 5.2%로 나타났다. 250~300만 원은 약 8.3%에 불과했고, 300만 원 이상은 3.1%밖에 없었다. 250만 원 이상을 받는 작가들은 전체의 10%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7. 현재 귀하의 급여는 월 평균(추산) 얼마입니까?	
100~ 150만 원	48 (25%)
100만 원 이하	10 (5.2%)
150~200	70 (36.5%)
200~250	42 (21.9%)
250~300	16 (8.3%)
300 이상	6 (3.1%)
총합계	191

또한 직급에 따른 급여를 추산하기 위해, 현재 직위에 따른 급여에 대한 응답을 재정리해 보았다.

7. 현재 귀하의 급여는 월 평균(추산) 얼마입니까?

응답 194개



100~150만 원에 메인 작가가 15명, 1인 체제 작가가 14명에 달했다. 경력이 높고 연차가 쌓여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지역 방송작가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150~200만 원 또한 메인 작가와 1인 체제 작가가 31명에 달했다. 사실상 급여에 있어서 서브 작가와 메인 작가의 응답자 수가 고루 분포된 것으로 보아, 서브 작가 직급 이상으로는 원고료가 오르지 않았음을 의미했다.

※직급에 따른 급여

급여 / 직급	응답자 수
100~ 150만원	48
메인	15
서브	15
신입 및 취재 섭외	4
직위 없는 1인 체제	14
100만 원 이하	10
메인	1
서브	2
신입 및 취재 섭외	4
직위 없는 1인 체제	2
패널 겸 작가	1
150~200	69
막내	1
메인	31
서브	15
신입 및 취재 섭외	3
직위 없는 1인 체제	18
(비어 있음)	1
200~250	42
메인	21
서브	7
직위 없는 1인 체제	14
250~300	16
메인	9
서브	3
직위 없는 1인 체제	3
(비어 있음)	1
300 이상	6
메인	4

서브	2
총합계	191

8. 프로그램 방영 전, 기획단계에서 기획료를 받았습니까?

새로운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프로그램의 형식, 가치, 성격 등을 주요하게 결정하기 때문이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전에 많은 담당 PD와 많은 회의를 거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이 과정에서 아이디어 제공·기획안·제안서 작성 등 적지 않은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프로그램 방영 전, 기획단계의 업무를 하고 기획료를 받은 경우는 20명(항상 받았음, 받은 적이 더 많음)에 불과했다. 대다수는 받은 적이 없거나(140명, 73.3%) 받지 못한 적이 더 많음(19명, 9.9%)으로 드러났다.

8. 프로그램 방영 전, 기획단계에서 기획료를 받았습니까?	
받은 적이 없음	140 (73.3%)
받은 적이 더 많음	6 (3.1%)
받지 못한 적이 더 많음	19 (9.9%)
사전 기획단계에서 일한 적이 없음	25 (13.2%)
항상 받았음	1 (0.5%)
무응답	
총합계	191

9. 원고료 인상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원고료 인상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질문에는 총 192명이 응답했다. 구두 개별 인상, 인상한 적 없음, 물가상승률 반영한 단체 인상이라는 객관식 응답에 기타의견으로 원고료 인상에 대한 부당함을 직접 남겨주었다. 먼저, 원고료 인상을 아예 한 적이 없다는 결과가 43.2%에 달했으며, 구두 개별 인상이 43.8%였다. 기타 대답의 유형을 모아보면, '오히려 삭감'되거나, '부정기적으로 인상', '인상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9. 원고료 인상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구두 개별 인상	84 (43.8%)
인상한 적 없음	83 (43.2%)
물가상승률 반영한 단체 인상	5 (2.6%)
5년마다 오른다고 하나 잘 지켜지지 않음.	1(0.5%)
2011년 봄 이후로 오른 적 없음	1(0.5%)
never	1(0.5%)
경력과 프로그램 따라서	1(0.5%)
그때그때 다르고, 지금은 몇 년간 동결 상태	1(0.5%)
그냥 알아서 올려주시던데요..	1(0.5%)
기준 모르겠음	1(0.5%)
단체 인상 형식을 띠고 있으나, 거의 인상이 없음	1(0.5%)
단체로 요구해서 5년 이상마다 한 번 정도	1(0.5%)
오히려 내려갔음	1(0.5%)
부정기적으로 직원들이 상의함	1(0.5%)
연차별, 프로그램 난이도별 인상	1(0.5%)
원고료 깎지만 알아도 감사할 판	1(0.5%)
인상이라기보단 업무량이 많으면 조금 더 주고 이후에	1(0.5%)

업무량이 줄면 다시 내려오는	
정해진 기준이 없고 인상 안 된 지 오래됨	1(0.5%)
제작비가 확보돼야 차츰 인상	1(0.5%)
최근엔 인상된 적이 없어요	1(0.5%)
특별한 기준 없이 소액 증가	1(0.5%)
프로그램별 책정. 인상의 구분이 따로 없음.	1(0.5%)
회사 맘대노	1(0.5%)
총합계	191

10. 방송사의 원고료 책정 기준을 알고 있습니까?

방송사들은 저마다 원고료 책정 기준을 가지고 있다. 경력(연차)과 프로그램의 성격, 업무의 형태, 프로그램 방영 시간 등을 기준으로 원고료를 책정한다. 서울의 경우 방송작가협회와 KBS, MBC, SBS 구성작가협회회가 각각 방송사를 상대로 정기적으로 원고료에 대해 협의를 한다. 그러나 지역사는 원고료 책정에 대한 협의 구조와 논의 테이블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지역작가들의 현실은 더 하다. 원고료에 대한 기준을 알지 못하고, 원고료 책정 기준조차 없다는 것은 노동자들이 자신이 받는 노동에 대가인 '임금'에 대한 정보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원고료 못 올린다가 기준입니다'라는 한 방송작가의 대답은, 원고료 책정 기준조차 알지 못하는 노동인권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방송사의 원고료 책정 기준에 대해서는 '기준이 존재하는 것만 알지만 정확히 알지 못한다.'가 77명(40.3%),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알지만 전혀 알지 못한다.'가 48명(25.1%)에 달했다. 65%가 넘는 작가들이 원고료 책정 기준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기준이 없다.'라는 대답도 53명(27.7%)에 달했다.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3.1%에 달했으며, 기타 4명의 응답자는 '아예 모른다', '기준이 없다.' 등으로 응답했다.

10. 방송사의 원고료 책정 기준을 알고 있습니까?	
기준을 전혀 모른다	1(0.5%)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다	6(3.1%)
기준이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서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1(0.5%)
기준이 없다.	53(27.7%)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알지만 정확히 모른다	76(40.3%)
기준이 존재하는 것만 알지만 전혀 모른다	48(25.1%)
세금 전 45만원 상한이 있고 상한에 도달하면 동결됨	1(0.5%)
아예 모릅니다	1(0.5%)
원고료 못 올린다, 가 기준입니다	1(0.5%)
있다고는 하는데 알려준 적 없음.	1(0.5%)
타 방송사의 경우는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함	1(0.5%)
(비어 있음)	
총 합계	190

11. 현재 어떤 방식의 계약을 맺고 있습니까?

4번 근무의 형태, 5번 문항의 근무 일수를 보면 대개의 작가가 일정 정도의 시간을 방송사나 제작사에 출근해 담당 PD의 업무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방송작가들은 방송사와 어떤 계약도 맺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 소위 '프리랜서'의 지위다. 지역방송작가들도 마찬가지였

는데, 59.2%가 구두 계약, 36.1%는 노동조건에 대해 아예 모르는 상태로 일을 시작한다고 답했다. 서면계약을 하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 191명 중 9명, 4.7%에 불과했다.

11. 현재 어떤 방식의 계약을 맺고 일하십니까?	
구두 계약 (노동조건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만 들음)	112(59.2%)
노동조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로 시작	69(36.1%)
서면계약	9(4.7%)
(비어 있음)	
총 합계	190

12. 문체부의 방송작가 표준집필계약서 도입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 1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 스태프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이에는 외주용역 위탁계약서, 표준 집필 계약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항 11의 경우처럼, 계약 절차가 전혀 없는 방송사의 프리랜서 고용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방송계약의 당사자인 작가들의 경우 114명인 59.4%가 표준집필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알고 있다는 응답은 78명 40.6%이었다. 절반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문체부의 표준계약서 마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문체부는 이를 방송사와 해당 방송 스태프들에게 더욱 많이 홍보하고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12. 문체부에서 방송작가 표준집필계약서 도입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다	114(59.4%)
알고 있다	77(40.6%)
총 합계	191

13. 지역 작가로 생활하며 생계의 걱정을 하십니까?

전체 191명의 응답자 중 83명인 43.5%가 '매우 그렇다'고 대답했다. 78명인 40.8%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지역 방송작가들의 80%가 생계의 걱정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보통이다는 12.6%, 하지 않는다는 2.1%에 달했는데, 기타 대답으로 "부모님이랑 살고 있어서 대체로 그렇다지만 혼자 살았다면 매우 그렇다고 답했을 듯"이라며 생계에 대한 걱정을 드러냈다. 브라운관에 비치는 방송작가들의 이미지와 '작가'라는 직업의 자부심과 다르게, 많은 방송작가가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는 점은 지역방송사가 책임 있게 방송작가들을 고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13. 지역 작가로 생활하며, 생계의 걱정을 하십니까	
대체로 그렇다	77(40.5%)
매우 그렇다	83(43.6%)
보통이다	24(12.6%)
부모님이랑 살고 있어 대체로 그렇다지만 혼자살았다면 매우 그렇다라고 답했을 듯	1(0.5%)
전혀 하지 않는다	1(0.5%)
하지 않는다	4(2.1%)
(비어 있음)	
총 합계	190

14. 생계를 위해 투잡(방송포함)을 하십니까?

192명이 응답했으며, 투잡을 하는 경우가 25.5%였다. 투잡의 경험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도 66명 34.4%였다. 생계를 위해 투잡을 하려고 한다는 답도 19.8%에 달했다. 대부분이 생계를 위해 투잡을 했거나 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거의하지 않는다는 17.7%였는데, 기타대답을 통해 하지 않는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시간이 부족하고, 일자리를 구할 줄 몰라 못하고 있다, 할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아예 하지 못한다,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는 기타 의견들은 투잡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기에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14. 상해 (산재)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그렇지 않다	2(1%)
대체로 그렇다	59(31.9%)
매우 그렇다	90(47.9%)
보통이다	36(19.1%)
(비어 있음)	
총 합계	187

15. 상해(산재)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방송작가들은 방송프로그램을 위해 사전 답사, 직접 취재, 촬영 동행, 현장 진행 등을 한다. 그러나 방송물 촬영 중 사고가 나도 방송국 소속이 아니기에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JTBC의 경우 방송작가들에게 단체로 상해보험에 가입했으나, 타 방송국의 경우 일상적인 재해와 사고 등에 대비한 개선안을 마련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드라마 화유기 제작 스태프 사고는 남의 일이 아니다. 지역방송사에서도 촬영 및 업무 중 방송작가들이 빈번히 않게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데, 산재가 되지 않아 개인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대해 방송작가들은 산재보험의 필요성을 강하게 밝혔다. 산재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90명으로 47.9%, 대체로 그렇다가 60명 31.9%로 나타났다.

15. 상해(산재) 보험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만성적인 직업병에 대비	81 (43.3%)
위의 사항 모두에 대하여	1 (0.5%)
일상적인 업무 및 출퇴근 중 사고 및 유사시	34 (18.7%)
촬영 / 취재 현장에서의 사고 및 유사시	68 (36.4%)
취재나 답사시 사고대비	1 (0.5%)
하고 싶은데 상근이라 할 수가 없다	1 (0.5%)
총 합계	186

16. 상해(산재)보험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또한 상해보험 도입의 이유에 대해서는 187명의 응답자 중, 만성적인 직업병에 대한 대비, 촬영/취재 현장에서의 사고 및 유사시 대비, 일상적인 업무와 출퇴근 시 사고 및 유사시가 각각 4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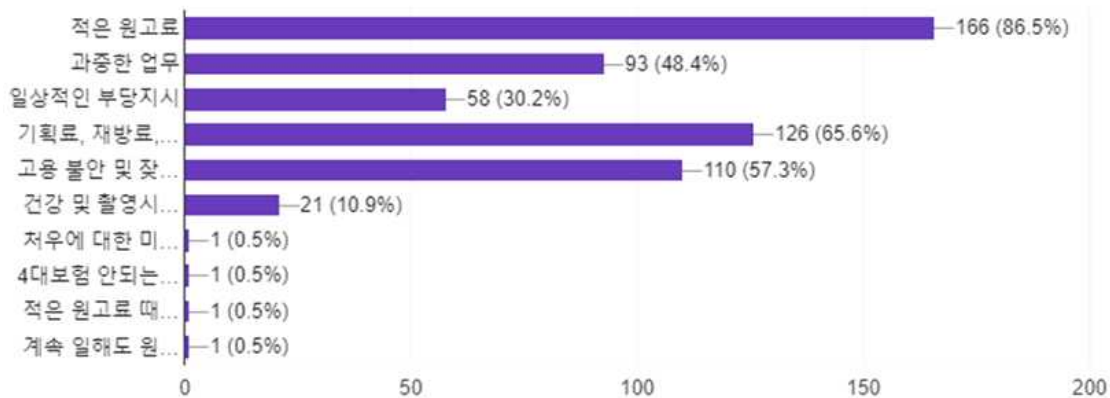
36.4%, 18.7%로 나타났다.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하는 작가들은 테니스엘보, 시력저하, 디스크, 소화 장애 등을 각종 만성병 등을 갖고 있다.

17. 지역작가 현실의 큰 문제는 무엇이라 보시나요? 복수 응답 (2~3개)

복수의 응답이 가능토록 했으며, 기타의견도 적을 수 있는 문항을 마련했다. 총 192명이 대답한 이 문항에 가장 많은 대답을 차지한 항목은 '적은 원고료'(166명, 86.5%) 였다. '재방료, 기획료'가 없다는 문제 또한 126명, 65.6%로 나타났다. 또한 과중한 업무 (93명, 48.4%), 일상적인 부당지시(58명, 30.2%), 고용불안 및 잦은 교체 (110명,57.3%)가 뒤를 이었다. 지역작가들이 복수로 응답한 노동 현실은, 실제 “부당한 노동과 과중한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원고료’로 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대 보험 미적용, 처우에 대한 미고지라는 대답도 나타났다. 기타의 대답에서 의미 있는 지점을 찾을 수 있는데, '적은 원고료 때문에 코너를 많이 맡아야 하고, 업무는 많아지고 결국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라고 밝혔다. 일하고 많은 업무를 지시받으며, 좋은 성과를 낼 수는 없다. 방송작가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방송프로그램의 질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방송사와 담당 PD들은 인지해야 할 것이다.

16. 지역 작가 현실의 큰 문제는 무엇이라 보시나요 (복수응답 2~3개)

응답 192개



18. 작가 처우 개선에서 가장 급선무는?

지역에 종사하는 방송작가들이 직접 밝힌 작가들의 노동 현실은 어떨까? 주관식 문항으로 받은 방송작가 처우 개선의 급선무는 총 167명이 대답해 주었다. 가장 많은 대답은 적은 원고료를 현실화하는 것이었다. 또한 계약서 작성, 4대 보험 도입, 고용 보장, 부당 노동 근절, 기획료와 재방료 지급 등을 밝혔다. 쉽게 해고되거나 교체되며, 일을 그만두어도 보장 생계를 보장받을 수 없는 프리랜서들의 노동 현실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역 방송사 원고료 현실화, 방송사 직접 고용(작가들을 피디가 채용하는 방식 철폐), 지역방송작가 최저임금 사수, 지역방송 정상화는 방송작가 처우개선부터 시작해야 한다
2011년 봄 이후로 오르지 않은 바우처, 피디와의 갑을관계, 4대보험 안 되는 것
24시간 근무대기

4대 보험 도입, 원고료 현실화
4대보험 성립
4대보험 적용
건강보험 적용. 서브작가 채용
건강보험, 국민연금, 재방.삼방 작가료
경력 작가에 대한 예우
경력에 따른 원고료 지급
경력에 따른 작가료 차등 지급 및 재방료 지급
계약서
계약서 작성\재방료포함
계약서 작성(업무량과 근무기간에 대한 명시) 4대보험 적용,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고료 산정
고료인상
고료현실화
고용 및 급여의 불안정
고용 보장
고용 불안
고용 불안 그에 비한 과중한 업무 지시 그리고 업무에 비해 낮은 작가료
고용 불안정 및 과중한 업무에 비해 적은 원고료
고용불안
고용불안 문제인 듯해요 프리랜서에 대한 보장이 법과현실이달라서..
고용불안 및 돈
고용불안과 낮은 원고료 4대보험
고용안정
고용안정과 원고료 현실화
고용안정보장 및 불가상승을 반영한 원고료 인상
고용의 안정
과도한 업무 환경 개선 및 기본 급여 향상
과중한 업무
과중한 업무 좀 줄여주길...
과중한 업무량
구성작가의 정확한 업무범위 및 업무에 타당한 고료 지급.
급여
급여 인상
급여 인상, 고용 안전
급여라도 많이 주면 받는만큼 일할 텐데요
급여인상
급여체계
기준마련.원고료인상
기준없는 원고료 지급
기준이 없다는 것
기준조차 모호한 적은 원고료
기획,재방송에 대한 페이지급, 원고료책정 기준마련, 작가도 프로그램을 만드는 동료라는 피디들의 인식개선
기획료, 재방료
낮은 원고료, 과중한 업무 (FD나 PD역할, 일까지 하는 경우가 잦음)
노동 대비 급여
노동에 따른 정당한 원고료지급
노동자로 인정받아 업무, 임금 등 명시된 계약서 작성
눈치 안 보고 내 의견 말하며 프로그램 만들 수 있는 환경
막내작가처우
막말, 부당한 업무지시, 작가를 소모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행태 등
명확한 기준이 있는 원고료와 업무량 조절 (제작 인원을 늘인다든지, 보다 여유있는 제작기간)
명확한 원고료 책정 기준 정리 혹은 안정성 보장
물가를 반영한, 일하는 만큼의

원고료지금이시급하다고생각합니다(일정한기준에따라)
바우처
바우처 인상
바우처 현실화가 가장 크다. 최저시급도 못 받고 노동만 하는 건 부당하다
부당한 원고료 책정(너무 낮다고 생각)
불안정한 자리
불안한 고용/생계
불안한 노동환경
상주작가의 처우문제. (파업과 결방시)
소속감이 없는것? 피디와 작가의 평등한 관계?
안정적인 임금 개선
알바도 해주는 4대보험과 계약기간 보장
업무 대비해 받지 못하는 원고료
업무량에 따른 정당한 처우
업무와 급료를 미리 알고 시작, 계약서
열악한 고료/ 고용 불안정/ 피디 갑질
오랜 시간 경력을 쌓아도 일을 그만두는 순간 수입은 0원. 작가들도 퇴직금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르지않는 원고료
원고료
원고료
원고료 4대보험
원고료 개선
원고료 문제. 당연히 상근해야한다고 생각하는 행태
원고료 및 근무조건에 대한 개선
원고료 및 기획료
원고료 및 잦은 교체 부당한 대우
원고료 인상
원고료 인상 계약서 도입
원고료 인상, 방송이 죽어도 원고료는 줬으면...
원고료 인상과 그 외 기타 불필요한 잡무에서 해방필요
원고료 지급, 근무시간 개선
원고료 체납지급과 피디의갑질
원고료 현실화
원고료 현실화와 고용불안
원고료 현실화와 과중한 업무 환경 개선
원고료 현실화와 부당해고 개선
원고료 현실화. 업무분담 필요성
원고료, 고용불안, 부당대우
원고료로 통쳐지는 기타 노동에 대한 임금 지급
원고료에 대한 안정성
원고료의 명확한 기준
원고료의 현실화(지속가능한 주기적인 인상폭)
원고료인상
원고료인상과 기준의 명확성
원고료현실화 고용안정
인간다운 대우 인권문제
인상되지않는 원고료
일방적인 해고 및 부당한 처사를 들어줄 만한 곳이 없어 관례처럼 이뤄지고 있는 것
일용직에 가까운 근무환경, 피디의 입김에 따라 작가교체가 이뤄지는 부분
일의 범위포함한 원고료 체계 정립
일한 만큼 받고 싶다! 페이!
일한 만큼 임금 제공
임금 인상
임금정상화. 일방적인 부당처사

임금체계가 없고, 현재 최대상한선인 회당 45만원도 굉장히 낮으므로 원고료인상이 필요
작가 경력에 대한 확실한 대우
작가들을 고용할 때 노동계약서를 모두 써야 고용할 수 있도록 강제성이 필요
작가료 인상
작가료 인상과 고용 안정
작가를 피디 등 제작진과 동등하게 취급해주길 바란다
재방료, 원고료현실화
재방료는 왜 작가협회기준에 따라야 하는가/기득권들이 더 많이 먹기위한 기준의 잣대가 주어지고있다/재방료에 대해 방송국과 어떤 협약은 맺었는지 확인할수없다
적은 원고료, 결방시 고료 미지급, 고용불안
적은 원고료와 결방시 미지급
적은 원고료와 고용불안
적은 원고료와 대우
적은 원고료와 불안한 고용체제
적은임금과 과중업무
적정 원고료
정규직 전환
정당한 고용 계약
정당한 처우와 급여
정상적인페이책정
정확한 기준에 위한 원고료 산정과 인상
정확한 노동 조건 제시 및 연차에 맞는 작가료 인상
정확한 원고료 기준과 계약서 작성
정확한 원고료 체계 시스템
존재인정
지역작가들의 턱없이 낮은 원고료,
직원처럼 일하지만 4대보험이 되지 않는 것
직장인과 같은 체계적인 고용형태 구축이 시급
체계적인 작가료인상과 기본급인상.피디들의 갑질과 부당한 지시.
최저시급 보장, 노동자로서의 권리
최저임금에 맞춘 막내작가의 임금 책정과 물가상승률에 따른 원고료 책정
턱없이 낮은 원고료 문제
페이
페이 올리기
페이가 너무 적고 인상도 어렵다는 점 경력이 높은서브일수록제대로된페이를받지못한다는점...때문에미래를생각하면정말암울해진다는점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 도입과 경력에 따른 타당한 원고료 인상
표준계약서 도입과 고용불안 해소
프리랜서로 일한다는 것
한번 정해지면 몇 년이 지나도 오르지 않는 임금과 프리랜서라는 이름만 붙여놓고 정직원과 같은 출퇴근 시간을 피디가 정하고 또 투잡이나 다른 알바 같은 일을 못 하게 하는 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근무시간 조정
현실적인 원고료 책정

18. (주관식) 그동안 방송작가로 일하면서 겪었던 열악한 업무환경, 인권침해 사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큐 해서 상 받아도 작가 노력은 온데간데없다. 턱없이 낮은 원고료 주고 일은 다 하는 부당함, 피디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과도한 음주문화로 인한 성희롱적 상황이 되풀이 됨. 지역 작가들과 수도권 작가들 처우가 너무 차이 남. 지역작가는 지역이라 감내하라 하는

데, 그럼 지역 피디는 수도권 피디와 처우가 차이 나는 지 궁금하다.

-PD가 선택해서, 작가를 쓴다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쳐우하는 것이 바뀔 것 같지 않다. 말로만 작가님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상황, 생계는 안중에도 없다. (이번 파업을 겪으며 뼈저리게 느낌. 그들이 외치는 정의라는 것은 작가를 향해 있지 않다.)

-성희룡, 성차별적 발언, "여자가 하기 좋은 일" 낮은 임금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 함. 피디의 갑질행포, 예고없는 해고

-작가의 노동력을 인정해 달라.

-일용잡급으로 머물러선 개선이 안될 듯 합니다.

-방송생산현장에서 대체불가한 작가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현실적인 보상과 대우를 해야 할 것이며 정규직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근로계약 명시를 통한 4대보험 보장부덕

-피디, 사측의 의식전환이 가장 필요하겠죠. 쓰다 버리는 일꾼이 아니라 동료이고 동지라는 생각의 전환?! 어렵겠으나..

-피디 갑질 부당한 언행

-처음 자료조사로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하여 3개월 무급으로 일함. 프리랜서라는 허울 좋은 단어 안에서 비상식적으로 낮은 임금과 잦은 인원 교체가 당연시 되고 있음. 작가들에게만 주어지는 과중한 업무, 제작비문제로 인한 원고료 감소, 갑작스러운 해고통보.

-성차별적 발언과 원고료 남녀차별

-직원 월급은 인상하면서 제작비 부족이유로 원고료 깎기 (음악방송 80% 지급 등)

-편성 방송시간이 줄게 되면 제일 먼저 빼는 것이 작가료였고 그것에 대한 미안함은 없었습니다. 그저 늘 "너희 돈을 안 빼면 어디서 돈을 빼냐?" 등의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죠. 작가들은 피디들의 억압과 억지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노동환경, 피디의 갑질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위험한 현장에서 구르는 작가들에게 산재가되지않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원고료가 계속 오르지 않음.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친분으로만 일할사람 선택.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고료 측정으로 생계위협. 지역 10년차 작가가 수도권 취재 막내 작가 보다도 못한 고료. 그에반해 작가 본연의 업무 이외의 일까지 처리. 법적테두리 필요

-제작비 항목 중 작가는 '원고료'하나에만 해당한다. 기타 기획료, 출장료, 편집비(피디와의 협업시), 초과근무(밤샘작업), 새벽출근 (라디오 작가의 경우) 등 작가업무에 해당하는 타 항목들에 대해서도 인정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누구는 야근수당 받으면서 맘편히 밤새고, 누구는 밤샘하는 게 당연시 되는 현실.... 그건 아니지.(동일노동 동일임금!!)

-업무환경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원고료

-작가는 자신의 의견 없이 피디의 명령에 따라야한다

-최저시급조차 안되는 원고료, 섭외부터 자막까지 하는 일은 산더미

-해고빌미 부당업무 강요, 원고료 삭감, 성희롱

-000 국장님은 프리랜서 중에서도 작가에 대해 돈을 주는 걸 특히 더 아까워한다 들었어요. 한 작가를 오래쓰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된다며 피디들에게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다녔구요. 그래서인지 부임하시자마자 첫 개편에 작가들에게 해촉사유에 대한 내용부터 보여줬습니다. 또 그간 피디들이 적은 원고료를 그나마 메꾸라는 의미로 챙겨주던 주말 프로그램도 분리시키라며 주말 프로그램 작가만 따로 뽑아 운영중이고요. 그래서 작가는 넘쳐나 모두가 알바수준으로 전락한... 작가생활 20년이 다 되어가는데 점점 처우가 좋아지기는 커녕 최근 이런 일까지 겪으니 자괴감이 느껴지네요. 주 5일을 꼬박 일하고도 140이 채 안되는 보수는 말할 것도 없구요. 출근까지 매일 강요하니 기름값 빼면 과연 얼마일지...

-적은 원고료는 일상이며,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프로그램 하차시키는 등 근무여건이 매우 좋지 않아 방송작가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경력에 대한 보상도 없고 정규직 채용도 없으니 늘 미래가 불안합니다. 기획료, 촬영진행료, 프로그램 기획 저작료, 재방송 원고료가 없으니 더더욱 힘이 듭니다.

-프로그램이 개편되면서 팀장의 말 한마디로 실직

-작가로서의 고유한 영역을 인정하기보다는 조금 일 잘하는 비서를 둔 듯 생각하는 피디들의 의식개선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 생각.

-쌍욕을 들은 적도 있고, 커피 심부름을 한 적도 있고, 임신했다고 개편 때 선배 작가의 의사와 상관없이 짚린 걸 봄, 2011년 봄 이후로 바우처 안 오름, 개편 때마다 작가는 그저 피디에게 선택 당하는 존재 선택 받지 못 하면 집에 가야함.

-원고료 인상및 고료 지급기준

-외주제작사와 일하면서 외주 편집을 봐주었더니 하루꼬박 이들은 걸릴만큼 업무량이 많아서 원고료 올려달라했더니 그럼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어요

-특정 야외 촬영이 잦은 방송만이라도 보험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본다. 위험한 순간들마다 작가포함 스태프들의 안전이 우려된다.

-대부분의 방송작가가 프리랜서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관계자들이 부하직원을 부리듯이 대하는 인권침해적인 행동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방송이 갑자기 죽으면 아무런보상없어

-너무 많아서 다 남길 수 없어요 πππ

-지역작가는 만능입니다. 섭외부터 구성, 원고, 자막 등등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일의 양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작가료와 늘 개편에 떨어야 하는 게 현실이죠. 그런 점의 개선은 모두가 힘모아 추진할 사항이라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방송구성작가로서 박봉의 작가료에도 버텼던 건 나름의 프라이드였는데.. 요즘 나오는 구성작가의 현실에 대한 기사들에 조금은 자괴감이 듭니다. 그게 현실이라 슬프고 그것을 인정하는 내자존심이 슬프고, 방송작가 별거 아니었네 쳐다보는 3자의 시선이 슬픕니다. 이런 양날의 검속에 우리 노조가 슬기롭게 잘 이겨내리라봅니다.

-상근을 요구, 파업 시기 업무 과중

-서울tbs는 정규직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다. 결국 정규직화가 답이 아닐까...

-제작비 삭감시 가장 먼저 줄어드는 건 작가의 고료

-기본시급도 지키지않는 막내작가월급/ 결방 시 떠안게 되는 생계유지 걱정/ 피디의 잦은 인격모독과 언어폭력/ 편성변경에 따른 일방적 해고/ 협의없는 원고료 후려치기

-피디 마음대로 작가를 사용하고 버리는 시스템은 갑질 중 최고 갑질이라 생각함.

-업무는 늘어가는데 회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료가 깎이거나 당장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 일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인권침해적 발언, 성차별적 발언에도 웃으며 비위맞춰드리는데 역시 방송작가에겐 당연한 업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농담 한 마디 안 받아드렸다가 영원히 이 지역에서 10원 한 푼 못 벌게 될 수도 있는 곳이 지역사회입니다. '이것만 하차하게 될 줄 알아? 다시는 여기에 발도 못 붙이게 해줄까?'라는 발언을 정말로 듣고 삽니다. 근데 정말 이 지역을 이사가야만 하게 만들 힘이 지역방송사 직원들에겐 있습니다.

-서울은 메인 서브 막내의 역할이 나눠져 있지만 지역 방송사는 60분 토크 프로그램도 혼자 해야 합니다. 섭외, 사전미팅, 구성안, 출연자관리, 현장진행, 자막까지... 이 프로그램을 격주로 하면 돈이 안 되고, 다른 프로그램과 같이 하자니 밤샘은 기본... 너무 힘드네요. 기존에 7년 이상 등급이었던게 폐지되면서 4년 이상으로 동등하게 원고료를 받고 있어요 4년 이상 기준이라 불합리적인 것 같아요

-페이지 적고, 인상되질 않음. 생계를 위해 투잡을 하려했지만 왜 다른 쪽 일을 하나는 피디들의 질책을 받은 적 있음.

-구두계약, 작가의 업무 범위 불확실, 고용과 해고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없음. 업무 기간을 기준으로 급여지급 기준 마련. 원고료 지급일이 방영후 익월인 경우가 많아 일일하고도 2~3개월 넘게 원고료 지연의 경우도 많음.

-여러 밤을 새는 것을 열정이라 포장하는 무책임함. 회당페이 지급이란 시스템 아래서 결방이 되면 생계에 타격을 입는데 심지어 그에 합당한 휴일 보장이 안되는것 등.. 노동조건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서면자료가 있으면 나아지지 않을까합니다(시스템상 같을 순 없겠지만 보통 회사에서 말하는 야근수당, 주말수당 등의 과도한 업무를 줄이거나 보상해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

-똑같은 원고료지만 피디에 따라 업무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 피디와 작가의 갑을 관계구조, 피디의 개인 취향에 의한 작가 선정방식, 20년째 동결된 작가료, 폭언 성폭행 인격모독 갑질 등 부당한 대우를 구제 받을 기구가 없음.

-지역방송작가 역시 언론인입니다. 지역이라해서 행해지는 작가차별, 임금차별 등이 너무 심합니다. 특히 제작비가 적다보니 근무환경에서 업무 부담이 크고 노동의 강도에 비해 임금역시 불합리합니다. 이모든 일들을 지역작가에게 감내해야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일입니다. 지역 방송 지역 작가~ 이렇게 나누는것 자체가 편견이고 고정관념 아닐까요?

-피디가 잘못해도 작가탓. 인격을 모독하는 언행. 작가본연의 일이 아닌 업무의 지시로 잘못을말하면 대드는작가로 낙인찍힘

-원고료 올려달라 하면, 당돌하다 욕먹기 일쑤요. 처우 좀 개선해야한다 하면, 너 말고도 작가할 사람 줄을 서있다 하니, 열정페이 주면서 열정은 늘 꺾기만 하네요. 하도 열악해서 뭐부터 말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 고쳐봅시다^^

-원고료에 비해 부당한 업무량 지시 및 원고료 인상 문제를 거론하면 프로그램이 없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고용불안을 느끼게 함.

-방송사 형편을 이유로 특집방송 준비 시에도 동일한 원고료 지급. 하지만 특집은 무조건 준비해야 함.

-출산 시 동료작가들의 도움으로나마 한두달 겨우 쉴 수 있음.

-사회문제, 시사아이템을 좋아하는 모 피디. 하지만 스텝에 대한 무시발언(춘작가라 일을 잘 못한다 등), 의견교환이 아닌 설교에 가까운 업무지시 등이 계속 되고 있지만 주변에서 원래 마초적인 성격이라 그렇다.. 본심은 안그렇다.. 같은 포장으로 일관되는 중. 사회문제에 목소리 높이기 전에 가장 가까운 스텝에 대한 기본적 배려가 있었으면!
없음

-회사측에서 지금의 프리랜서 대우를 당연시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어떻게 해야 회사를 설득하고 우리의 노동인권을 찾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작가의 노조활동을 숨기지 않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막말, 욕설을 한 피디와의 지속적인 마주침, 방송 불안정에 따른 생계 위협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할 것. 일할 때는 정규직, 돈받을 때는 비정규직, 휴가 등 기본적인 혜택에는 프리랜서인 작가 생활이 나아지길 바람.

-회사가 뽑은 캐스터의 역량부족을 작가탓으로

1. 20대 방송 작가 초기 - 국장이 생방송 한두시간 앞둔 작가를 점심 사준다는 명분으로 데리고 나가 낮부터 술 먹임. 개인 통장 은행 업무 시킴, 회식때 억지로 술 따르게 하고 술 먹임. 술잔을 벽에 던지는 등 공포분위기 조성함 2. 두시간짜리 라디오 정보 프로그램을 혼자서 함. 음악도 없이 토크로만 준비하는 프로그램,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 방광염 걸림. 그 와중에 간간이 특집 해야한다고 라디오 다크도 함. 과도한 노동과 시간 압박에 . 3. 30대 중견 작가 - 개편 후 하루 아침에 수입이 50만원으로 줄어들. 그나마 그 수입도 출퇴근 기름넣고 밥 사 먹으면 없음. 빚으로 생활함. 원고료 지급 주기 불규칙, 한달에 꼬박꼬박 주는 경우 없고 피디가 맘대로 한달 반, 두달만에 지급함. 도저히 살 수 없어 방송을 그만둠 4. 40대- 돌아온 베테랑 작가 - 한시간짜리 시사프로그램 역시 혼자서 다 함. 음악도 안틀고 토크로만. 대통령 후보들 인터뷰를 해치우는 등 역량이 무르익음, 하지만 처음 구두 설명했던 업무량보다 점점 많아짐, 코너도 계속 쪼개서 늘어남, 선거 앞두고서는 민감한 정치 이슈, 국회의원 기관장 등 계속 불러댐. 고료는 20년전보다 더 낮음.....

-작가를 부려먹는 사람으로 여기는 태도, 프로그램 제작비 삭감시 작가료를 가장 먼저 손대는 건 일상적, 적은 고료에 비해 과중한 업무요구 등 업무의 강도는 정직원 대우는 프리랜서

-터무니없게 적은 작가료는 자존감마저 떨어뜨린다 경력무시 처사도 빈번 일잘하는 작가보다 말 잘듣는 작가를 원한다

- 주중에 주로 진행하는 전체팀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 주말과 휴일 없이 일하는 것이 다 반사. 피디 업무의 상당 부분을 작가에게 전가. 제작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작가진 숫자로 업무 과중. 기획료 재방료는 언감생심, 2개 프로그램을 하면 원고료는 1.5배만 지급 등

-재방은 나가지만 재방료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었다. 프리랜서이지만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항상 상주해야 하는 게 답답하다. 작가의 의사는 묻지 않고 일방적인 업무 지시까지.

-현실성 있는 작가료 책정 기준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면 더 이상의 작가료 인상이 없는 점, 작가의 연차와 프로그램 특성에 상관없이 담당 피디와 국장의 성향에 따라 작가료가 책정되는 점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 매달 그렇지만 특히 연말, 연초 주급이 늦다 심지어 주급을 월급처럼 지급한다. 정당히 받을 돈을 수십번 담당부장에 말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pd들은 편집이 늦거나 계속 수정해도 된다. 작가는 밤새 끝내지 못하면 무능력한 사람이 된다. 작가 전 fd일을 했었다. 허리를 빼어도 침맞고 녹화를 했다. 작가일 때는 촬영차 등반을 동행했다 고관절이

나가고 허리통증도 있었다. 당시 방송 전이라 주급 지급도 없었고 모두 사비로 병원을 다녔다.

- 제작비를 아끼겠다고 일방적으로 방송을 죽이기도 하고, 새프로그램 기획한답시고 한달여를 기획비없이 일을 하기도 하고요. 비정상적인 급여체계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어도 피디들은 월급 받는데. 메인 언니들이 뒷사람한테 밉보였다고 페이가 깎이기도 하고, 한마디 언급도 없이 프로그램이 없어져서 일자리를 잃는 것도 봤습니다. 10년 넘게 일한 언니들에게도 그렇게 대하는 것을 보면 미래가 없다는 생각에 막막합니다.

19~22. 응답자의 유형

응답자의 지역은 187명 중 대구경북 49명, 부산경남울산 42명, 대전충청 40명, 전북전주 18명, 전남광주 12명, 강원 5명, 제주 1명, 그 외 지역(서울, 수도권)이었다. 응답자의 97.9%가 여성이었으며, 남성은 2.1%로 나타났다.

19. 귀하의 지역은?	
강원	5(2.7%)
경기	7(3.7%)
경기도 광주	1(0.5%)
경기도/서울	1(0.5%)
광주/전남	12(6.4%)
대구/경북	48(26.2%)
대전/충청	40(21.4%)
부산/ 경남	26(13.9%)
서울	8(4.3%)
서울 경기	1(0.5%)
서울경기	1(0.5%)
인천	1(0.5%)
전주/전북	18(9.6%)
제주	1(0.5%)
(비어 있음)	
총합계	185 (100%)

20. 귀하의 성별은	
남	4(2.1%)
여	186(97.9%)
(비어있음)	
총합계	190 (100%)

20~30대들이 다수를 차지한 2016년의 방송작가 인권실태조사 (방송작가유니온, 전국언론노동조합) 과 달리 지역 작가 실태조사의 연령은 20대~50대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2016년의 조사는 서울/경기 지역 작가들을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 였다. 지역은 오랫동안 일하며, 작가의 수와 일자리의 수가 큰 폭이 없음을 보여준다.

21. 귀하의 연령대는?	
20대~30대	62(32.3%)

30대~40대	79(41.7%)
40대~50대	49(25.5%)
50대~60대	1(0.5%)
총합계	191 (100%)

응답자들의 연차도 다양했다. 191명의 응답자 중 1~5년차가 24.1%, 6~10년차가 26.2%, 10~15년차가 27.2%, 20년차 이상도 5.2%에 달했다. 지역이 서울/수도권 보다 경력 작가들의 비율이 높았다.

22. 귀하의 연차는 어떻게 되시나요?	
1~ 5년차	46(24.1%)
6~10년차	50(26.2%)
10~15년차	52(27.2%)
15~20년차	32(16.8%)
20년차 이상	10(5.2%)
8개월차	1(0.5%)
총합계	191 (100%)

이들은 방송작가유니온의 출범소식을 대부분 알고 있었으며(76.6%, 147명), 향후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작가들도 74.2%에 달했다. 지역방송 작가들의 처우 개선 문제에, 방송작가 당사자 스스로도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23. 방송작가노조가 출범한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몰랐다	22(11.5%)
알고 있다	146(76.6%)
이미 조합원에 가입했다	23(12.%)
총합계	191

24. 작가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향후 가입할 의사가 있나요?	
모르겠다	40(24.5%)
없다	2(1.2%)
있다	121(74.2%)
(비어 있음)	
총합계	163

<끝>